

# 보성조성남초, 조성남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부터 유치원 아이들까지 함께 시간 가져 지역민과 운동회·카네이션 화분 전달·음식나누기 등 행사 진행

보성조성남초등학교는 지난 8일 조성남초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학부모님과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운동회와 카네이션 화분 전달, 지역민과 음식나누기를 함께 진행해서 훈훈한 교육공동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어냈다.

이번 행사의 시작은 운동회 문구 가족공모로 시작했다. 가족별로 운동회 문구 공모에 참여하여 스티커를 가장 많이 받은 6학년 김세연학생 가족의 "푸른 새싹들이 자라나는 조성남 어울림 한마당"이 선정되어 운동회 당일 운동장 한가운데에 걸리게 되었다.

1부에서는 과도 넘기, 애드벌룬 종합경기, 하늘로 솟구, 학년 별 달리기, 티넬을 통과하

라, 말타기봉 릴레이, 미션릴보, 당겨당겨뽀 씨름 경기가 진행되었다. 특히 과도 넘기 경기에서는 학부모와 선배들이 천을 잡고 그위를 걸어오는 경기로 무서워하는 유치원과 1학년 동생들에게 "잘 할 수 있어, 힘내" 등의 응원의 말을 전하는 모습에서 조성남초는 하나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쉬는 시간에는 총동문회에서 오색 떡을, 조성남학교에서는 아이스크림 간식을 해 오셔서 학생들과 학부모 마을 주민들이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2부에서는 콩콩릴레이, 바구니 탐 쫓기, 사랑 던져라, 미션 줄다리기, 대항바톤 계주 경기가 진행되었다. 오랜만에 넓은 운동장에서

어른들이 지켜봐주는 가운데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반환점을 돌아오며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모습은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특히 어버이날을 맞아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준비한 카네이션 화분을 부모님과 동네 어르신들에게 드리니 울컥울컥 눈시울을 붉히시는 분들이 많았다.

또한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는 학부모님과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운동회 이야기, 예전 학교이야기, 앞으로 조성남초 발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따뜻하면서도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어울림 한마당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가



몽쳐서 하나가 되는 것 같았다. 오랜만에 정 팀 흥팀을 나눠서 하니가 질까봐 살짝 겁이 났다. 엄마 할머니가 보고 계시니 춤추는 것

이 부끄러웠다. 또 하고 싶다."등 적극적으로 다양한 느낌을 말했다.

보성=김복순기자

## 담양교육청, 담양발전 위한 정책제안 역량강화 캠프 실시



담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에 실시한 1차 정책제안 역량강화 캠프에

### 초·중·고 학생 총 68명 대상

이어 8일 대일학생자치연합회 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총 68명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방법에 대한 이해와 작성 방법 등을 배우는 역량강화 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2차 정책제안 역량강화 캠프는 많은 학생들이 담양군 발전을 위하여 담양군의 문제점을 고민해 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 후 제안서로 작성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7월 18일 담양군청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담양군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

회'에 비록 서툴더라도 평소 학생들이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였던 내용들이 사장되지 않고 하나의 훌륭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대일학생자치연합회 송민후 회장은 "작년에 처음 참여한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제안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제안서 쓰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 강진 도암초, 다산 사색길 걷기 체험활동



강진 도암초는 지난8일, 전교생과 교직원인 함께 다산 정신 계승을 위한 다산 사색길(백련

사-다산초당) 걷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다산 사색길 걷기는 도암초등학교의 특성교육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적 인물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계절별 다산 프로젝트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도암초 학생들은 백련사에서 출발하여 다산초당까지 숲길을 걸으며 우리 고장의 역사를 알아보고,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며, 땅에 떨어진 쓰레기도 줍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강진=김영일기자

## 함평중, 전체 학년 대상 '찾아가는 장애발생 예방교육' 실시

### '후천적 손상 예방교육' 통해 장애발생 경각심 일깨워

함평중학교는 최근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예방을 돕고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국립재활원 소속 장애인 강사가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 배양, 장애인식개선 교육, 신체의 중요성, 학교 주변의 사고,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5개명 및 사고발생 예방법 등 실제 본인의 사례를 소개

하며 진행했다.

특히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한편 장애유형 및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등을 교육하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전동킥보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고, 장애를 가지고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했다.

함평중학교 이가영 특수학급 교사는 "장애



는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대부분 발생되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며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함평=김광춘기자

## 광양용강초, '디지털 새싹 교육 캠프' 운영

광양용강초등학교는 지난 5월 1부터 6월 23일까지 3,4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새싹 교육 캠프'를 운영한다.

교육부, 전남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최로 운영된 이번 디지털 새싹 교육캠프는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고 로봇을 코딩하며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인공지능 톨로 깨치기와 EZDATA를 활용한 디지털 과학 실험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데이터로 세상을 디자인하라'로 나뉘어 운영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캠프에 참여한 4학년 김OO학생은 "겨울방



학에 형이 참가했던 SW 캠프를 보고 너무 부러웠는데 참가하게 되어 너무 즐거웠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게 될 미래가 즐거울 것 같다."라고 감사인사를 전하였다.

광양=김현근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